

“삶을 설계하는 공간, 집”

도시의 풍경은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다. 20년이 채 안된 멸절한 아파트가 재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허물어지고, 그 터전 위에는 더 높은 건물이 솟아난다. 재화(財貨)만이 존 재하고, 건축 문화는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 집은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유와 욕망의 대상으로, 재테크 수단 같은 물질적 가치만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건축가 승효상 씨는 “집이란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사람과 영향을 주고 받 는 ‘삶의 기록체’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건축은 한 개인의 소유 이상의 그 시대 의 산물이자, 문화라는 믿음은 그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잘 전달된다.

오브제 이상의 가치는 어울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明哲)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한 방들은 지식으 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라는 성경 잠언의 한 구절은 집에 관한 그의 사유와도 오롯이 닮아 있다. 승효상 씨는 건축에 인문학적 사유를 담는 건 축가이다. 그의 관심은 건축물의 예술적인 표현과 첨단 건축기술의 구현 못지않게 건축 안 의 사람들에 쏠려 있다. 공간과 사람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자신 의 건축 철학을 실제 건축으로 구현하는 데에 골몰하는 것.

“지혜로운 건축은 비율의 미학입니다. 건축은 채워져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래서 알 수 없는 미래의 부분은 비워놓아야 합니다.”

승효상 씨가 평소 주창해 온 건축 철학이자 동명의 저서이기도 한 ‘빈자(貧者)의 미학’의 내용이다. 건축물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과 사람들과의 조화, 그리고 알 수 없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건축이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림’을 추구하는 데 함몰되지 않고, 그 안의 공간인 삶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건축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건축의 중요성은 오브제로서가 아니라, 환경으로서 가치가 중요하다”며 삶과 환경이 조화 를 이루어 한다고 역설하는 그는 집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 ‘건축’이라는 기회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이 건축가가 염두에 두는 집에 대해 물어봤다. 그의 대답은 간결하다. “집이란, 본질적으로 삶을 담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집을 사람을 닮고, 그 안의 사람도 다시 집을 닮는다는 순환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가 천착하는 화두인 ‘건축물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좋은 공간에 살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건축은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건축이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 그는 물리적으로 세우고 올린다는 ‘건축(建築)’이라는 용어는 영 마뜩치 않다고 한다. 건축이라는 용어의 대안으로 그가 제시하는 말은 ‘영조(營造)’라는 말이다. 우리 의 삶에 영향을 주고, 사는 방법을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조(營造)에 좀더 애정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승효상 씨의 말대로 건축 그리고 집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안의 사람과 시대, 장소와 연결되는 지점에 있어야 한다. 생을 기록하는 공간이자 문화 로서의 새로운 집을 만나고 싶어진다. ▲

건축가 승효상은

1952년생, 서울대학교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빈 공과대학에서 수학했다. 그는 고 김수근 씨 문하를 거쳐 1989년 건축 스튜디오 ‘이로제(履露齊)’를 설립했다. 20세기를 주도했던 서구 중심의 건축문화의 대안이 되는 건축 철학인 ‘빈자의 미학’을 바탕으로 한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저서 ‘빈자의 미학’, ‘지혜의 도시, 지혜의 건축’ 등을 펴내면서 건축과 인문학의 만남을 실천하는 중견 건축가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수졸당(1993), 수백당(1998), 웰컴시티(2000),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2003) 등이 있으며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파주 출판도시 설계를 진두지휘했다. 2002년 미국건축가협회에서 ‘ 명예 펠로우(Hon orary Fellow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에 선정됐으며, 같은 해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의 ‘2002 올해의 작가로 선정돼 ‘건축가 승효상 展’을 가졌다. 현재 이로제 대표 겸 서울건축학교 운영위원으로 있다.

seung
h-
sang